

인천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안

CONTENTS

- I. 서론
- II. 선행연구 및 정책 고찰
- III. 인천시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
: 인천시 장기요양 현황
- IV.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수행인력으로서의 요양보호사
- V. 결론 및 정책과제

연구명	인천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구자	김수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빙연구위원) 권미애(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선임연구위원/팀장) 조수현(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초빙연구원)
작성자	권미애(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선임연구위원/팀장) 김제희(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

[ICAS 정책이슈&진단은 센터 홈페이지(www.inlife.or.kr)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주요 연구 결과
 - 돌봄 서비스 업무 외 가사활동, 심부름 강요, 무시 등 요양보호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주된 행위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으로 나타남
 - 요양보호사 교육의 경우 시설 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참여는 소속 기관의 평가 요소로 작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속한 민간 기관에서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의 횟수와 실효성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내용은 인성과 관련한 주제임
 - 요양보호사의 권익 증진 및 새로운 돌봄 인력 확보 방안으로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제시한 방안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임
 - 요양지도사 제도 도입 시 역할, 보수, 타 직종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요양지도사가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았음
- 인천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위한 정책 과제
 -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 ①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② 교육프로그램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제언
 - ① 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사각지대 축소 ② 돌봄인력의 확보
 - 요양지도사 제도 도입
 - ① 요양지도사의 역할과 자격
 - ② 타 전문직 간 명확한 역할 정립
 - ③ 요양보호사의 유입경로 분석과 타 분야 진출가능성 제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18년 11월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 커뮤니티 케어가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음
 -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의 재가서비스가 대대적으로 확충되어야 함. 이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인력으로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 2018~2022년까지 선도사업 실시로 커뮤니티케어의 모델을 개발하고,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단계로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개편을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제공인력 양성, 돌봄인력 교육,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및 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이 주요한 제공기반으로서 제시되고 있음
 - 주요 방향으로서는 욕구의 포괄과 서비스의 통합을 중요시함.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는 분절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음. 그러나 다른 영역과의 통합적인 사례관리에 있어 한계를 보이는데, 이는 타 영역에서의 통합적 사례관리에 대한 이해 및 필요성 등에 있어 영역 간 차이가 내재된 것으로 보임
 - 그 외 종합재가센터 신설로 재가 돌봄의 역할을 담당하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오던 재가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임
-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행 인력인 요양인력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2019년 5월 전국을 기준으로 할 때 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노인은 70만 8천 명으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 778만 명의 9.1%에 달함. 등급인정을 받은 노인 중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수급자는 2019년 5월 기준 노인 중 8.0%로 59만 명이며, 이를 2022년 9.6% 86만 명, 2025년 11% 수준 12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음(보건복지부, 2018)

- 이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규 요양보호사의 유입 및 기존 요양보호사들이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력을 활용하는 데 저해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서동민(2013)은 기존인력 유지·유입방안의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전문성 강화를 제안하였으며, 이의 세부과제로 의무 보수교육 실시, 전문분야 특화, 승급체계 도입을 제시하였음. 또한 신규인력 창출과 관련하여 직업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직업윤리 및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것을 세부과제로 제시한 바 있음
 - 경력에 대한 보상의 대표적인 지표는 임금으로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월평균 임금은 약 129만원으로, 시설요양보호사는 평균 약 161만원, 재가요양보호사는 평균 약 112만원을 받음(하석철·양지훈, 2019). 그러나 이러한 요양보호사의 급여체계는 외부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써 이에 대해 단일 시(市) 단위의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음
- 새롭게 요양보호사의 승급과 관련하여 요양지도사 도입이 예고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에 맞추어 요양보호사와 요양지도사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파악하여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 경로를 만들어 2022년 요양지도사를 도입할 계획이며, 그 역할 및 자격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로 요양보호사의 돌봄 제공대상이 증가하고, 수급자의 특성별로 요양에 필요한 특수한 기량(기술)이 다를 수 있으며 치매, 뇌병변 등 각기 특성에 맞는 경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현재 치매에 관해서는 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는 전문과정이 존재하고 있음
 - 201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을 기준으로 할 때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가장 많이 가진 질병은 치매(203,610명)와 중풍(86,331명), 요통 및 좌골통(71,637명)으로 나타남. 더불어 인천시를 기준으로 할 때 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이 가장 많이 가진 질병은 치매(32,005명)와 중풍(10,501명), 요통 및 좌골통(4,106명)인 것으로 나타남
 - 케어매니지먼트를 담당할 인력으로 거론되는 요양보호사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역할 범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 경력과 그에 대한 보상은 제도적으로 미비함. 즉, 경력의 정도에 따른 승급제도와 보

상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숙련도와 직무 능력에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와 역할 모형이 정립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따른 근무실태와 욕구 수준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의 경력에 연동시킬 수 있는 역할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방향 및 요양보호사 경력 개발과 관련된 기존의 논의점들을 살펴보기 위해 선행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정리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세부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인천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준비도를 살펴보고, 현황을 바탕으로 인천시에 필요한 정책 등을 제언함

2) 연구 방법

① Secondary data 분석

-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수행한 「인천시 돌봄종사자 실태 및 지원방안 :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의 원시데이터(Micro data)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경력 및 그에 따른 근무실태, 욕구 분석
 - 실증분석용 항목으로 일반적 사항, 경력, 월평균 급여, 고용형태, 서비스제공 대상자 수, 서비스제공 대상자 요양등급, 하는 일의 전문성, 근로개선, 권리증진, 전문성강화 인식, 근무실태에 대한 만족도 등

② 경력직 요양보호사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지역 전문가 인터뷰 조사

- 경력직 요양보호사 1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 및 요양지도사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내용 파악
-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관련한 선도지역의 담당 공무원, 인천시 요양보호센터장 인터뷰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기반 및 향후 준비사항 등의 의견 파악

③ 전문가 자문을 통한 연구의 질 확보

- 제1차 자문 : 외부 전문가 및 인천시 공무원, 내부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연구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실시하였음
- 제2차 자문 : 외부 전문가로부터 연구 결과 검증 및 논의, 제언에 대한 추가 의견 제시
- 연구심의 : 연구보고서의 완성도 및 활용성 등 종합적 평가 실시

II. 선행연구 및 정책 고찰

1. 지역사회 통합돌봄

-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들이 평소 살던 곳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민간서비스 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맞춤형 모형으로 진행
 -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방문의료, 재가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을 핵심 요소로 함
 - 세부실천 과제로 생활 SOC와 연계한 커뮤니티 케어형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기반 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실시, 퇴원서비스로 끊김 없는 재가서비스 연계, 건강 취약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1:1 맞춤형 의료제공, 2025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확대 목표, 병원의 서비스 전문화 및 합리적 이용 유도, 거주 근접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는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사회 자율형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케어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적 기반 마련을 제시하고 있음

2. 요양보호사의 역할 및 경력개발

- 요양보호사는 돌봄노동을 주로 담당하며,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시설환경관리서비스, 간호처치서비스를 진행함.

- 경력개발은 개인의 지식, 경험, 적성, 능력 등 필요한 직무와 잘 조화되어야 하며, 승진경로가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는 등의 원칙을 포함하며(강정대·황호영, 1998), 경력직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개인의 경력개발을 보장하고 경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석재은·류임량, 2018)

3. 선행연구 고찰

-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선행연구는 크게 제도화 및 모형의 구축, 유사 사회서비스, 국내 및 해외의 사례, 인력에 대한 고찰로 나뉠 수 있음
 - 제도화 및 모형 구축에서는 공공빅데이터 활용, 공공실버주택, 사회적 돌봄, 중간지원조직, 사회복지관의 역할 및 사회적 경제 등의 내용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음
 - 유사 사회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서비스에서의 재가·방문간호, 기존의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재가 노인 지원서비스 등이 연구되었음
 - 국내 사례의 경우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과천 등의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해외의 경우 영국과 일본의 사례가 주로 소개됨
 - 인력에 대한 고찰에서는 사례관리자의 역할 및 교육 경력직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음

Ⅲ. 인천시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 : 인천시 장기요양 현황

- 인천시 노인인구는 2019년 379,210명으로 전체 인구중 12.82%를 차지하며, 2022년에는 451,354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2018년 인천시 장기요양 인정자 수는 36,542명이며, 2022년 43,330명으로 정부의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 확대계획에 의거하여 인정자 수를 확대할 예정임
- 2018년 말 기준 인천시의 장기요양기관 전문인력은 모두 28,001명으로 이중 요양보호사의 비중이 87.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IV.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수행인력으로서의 요양보호사

1. 既 조사데이터 분석

- 2018년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수행된 「인천시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및 지원 방안」의 원시자료 506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재가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 중 27.6%는 과거 시설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의 정책변화 및 근로환경 등의 변화로 인해 향후 시설종사자가 재가에서 활동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 분석에 앞서 경력직 요양보호사와 비경력직 요양보호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요양지도사 최소 승진연한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기준을 참고함. 요양지도사 최소 승진연한은 3~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 경력이며,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기준은 입소형과 방문형에 차이를 두고 있음
 - 입소형 : 최근 월 120시간 이상 계속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자
 - 방문형 : 최근 4년간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36개월 이상인 자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3년 이상이면서 월 120시간 이상 근무자와 만 4년 이상이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자를 경력직 요양보호사로 기준으로 삼음
- 데이터 분석결과 중 경력직 요양보호사와 비경력직 요양보호사 간 차이를 보인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뇌졸중환자의 케어경험은 전체의 26.3%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비경력직인 경우 24.5%, 경력직의 경우 34.0%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임
 - 근로시간의 적절성(비경력직 평균 3.10점, 경력직 평균 3.36점)과 만족도(비경력직 평균 3.09점, 경력직 평균 3.27점), 급여수준의 적절성(비경력직 평균 2.57점, 경력직 평균 2.93점)과 만족도(비경력직 평균 2.85점, 경력직 평균 3.03점), 근로강도 만족도(비경력직 평균 2.96점, 경력직 평균 3.10점), 동료관계만족도(비경력직 평균 3.54점, 경력직 3.71점), 일 생활균형 만족(비경력직 평균 3.24점, 경력직 평균 3.39점)에 있어서 경력직이 비경력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¹⁾

1) 5점 만점 기준

2. 면접 조사 결과

- 경력직 요양보호사 19명과 인천시 재가요양센터 시설장 1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역 담당공무원 1명을 1:1 또는 2:1 면접 조사함

1)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목적 및 취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인식하나 정책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돌봄 영역에의 공공성 강화에는 동의하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자 확대에 따라 대기업 등의 자본유입에 대한 우려를 지님
- 중간조직의 필요성과 공공이나 민간의 이해관계가 없는 기관으로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제안함
- 케어매니저의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요양지도사는 장기근속 기준보다는 상향 설정되어야 한다고 봄. 전문대 이상 학력 기준 트랙의 경우 장기간 실습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한다면 요양지도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경력직 요양보호사 인터뷰 분석 결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있어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혹은 시설기관과 같이 여러 요양보호사가 함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예상함
-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누락되었던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와 건강 상태, 주거 상태 등이 열악하나 소득 기준, 혹은 부양가족의 존재 여부로 인해 돌봄서비스를 받지 못한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확대될 것으로 인식함
- 요양보호사의 인성 교육 강화, 직무 교육 내실화, 휴게시간 보장 등 요양보호사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한다면 좀 더 나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함.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수적임

- 요양지도사는 5년 이상의 요양보호사 경력과 객관적인 지표로 추가 교육 이수, 자격 시험 통과 등의 자격을 갖추었을 때 위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예상함. 요양에 대한 전문지식 뿐 아니라 중간관리자로서의 갈등, 역할 조정 역량이 필요함.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이수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여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V. 결론 및 정책과제

1.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1)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 개선

- 돌봄 서비스 업무 외 가사활동, 심부름 강요, 무시 등 요양보호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의 주된 행위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지속적, 상시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음
- 공격적인 서비스 이용자나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서비스 이용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전문적인 기술 훈련 기회와 위험수당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어야 함
- 문제적 상황을 경험할 경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수행하고 필요 자원을 연계시켜줄 수 있는 지원 기관과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함

2) 교육프로그램 강화

- 요양보호사 교육의 경우 시설 간 격차가 매우 크므로 구청 등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기관을 통해 공공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며 보수교육 참가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여 교육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감
- 요양보호사의 직무교육 참여는 소속 기관의 평가 요소로 작용하여 요양보호사가 속한 민간 기관에서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교육의 횟수와 실효성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 강화와 더불어 표준화된 교육을 매뉴얼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요양보호사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 내용은 인성과 관련한 주제였으며, 서비스 이용

자인 어르신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분쟁 발생 시 요양보호사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안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더불어 시설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주로 야간시간에 긴급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응급처치 교육, 야간 사고 방지 교육 등이 요구됨

2.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제언

1) 서비스 이용자 확대와 사각지대 축소

-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 이후 서비스 이용자의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중점 대상에 대한 지역 내 합의가 요구됨. 기존의 소득, 부양가족 기준의 완화로 인한 중복 서비스 지원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각지대를 축소하여 지역 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점 정책 대상으로 특정 질병(편마비, 치매 등), 혹은 특정 연령대(초고령 노인)나 지역적 특성(농어촌 및 도서지역 거주 어르신)을 제안함
- 케어매니저 혹은 공공성을 갖춘 관련 지원기관이 주도하는 철저한 사정을 통해 소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 제공을 방지하고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2) 돌봄인력의 확보

- 요양보호사의 권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돌봄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제시한 방안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임. 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에게 기관에서 해당 내용을 설명하고 요양보호사의 공식 업무 내용과 범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더불어 이러한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은 일회성 캠페인 등 단기간의 개입으로 효과를 보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인식개선활동이 필요함
- 원활한 인력수급과 일자리 진입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내의 구인구직 네트워크 마련과 고용알선 전문기관의 육성,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요양보호사 양성, 특성화고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개설, 전문대학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개설(이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함

- 지역사회 통합돌봄 도입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설치·확충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전달체계 마련을 통한 법적 지원 및 고충창구 마련이 요구됨

3. 요양지도사 제도 도입

1) 요양지도사의 역할과 자격

- 요양지도사 제도 도입 시 역할, 보수, 타 직종과의 관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나타남에 따라 도입에 있어 신중함을 요함. 역할의 차이가 없이 승급 및 보수 확대에 대해서는 반대의 의견이 많았으며, 요양보호사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 따라 이에 대한 역할 고려가 필요함. 그 외 요양보호사 지도, 경험 전수, 기관과 요양보호사 간의 네트워크 강화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요양지도사가 되기 위한 역량과 자격 기준으로 가장 중요시 되는 역량은 인성이었으며, 어르신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태도, 일상영역에서 어르신을 존엄하게 대하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2) 타 전문직과의 관계

- 지역 내 병원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의사, 간호사 등 의료분야 건강전문직과 시설 및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했던 요양보호사 등 복지분야 돌봄전문직, 그리고 봉사활동이나 공공일자리의 성격을 가진 생활지도사와 같은 다양한 인력이 활동하게 됨. 인력 간 역할 배분이나 비용 산정 등의 세부 내용에서 전문직 간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행에서의 타 전문직 간의 역할 정립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요양보호사의 유입경로 분석과 타 분야 진출가능성

- 지역 내 봉사활동을 하다가 요양보호사로 유입되는 경로를 주목하여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요양보호사로서의 경력이 축적된 이후 탄력적 근무를 통해 기관 평가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경력개발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함

참고문헌

강정대·황호영(1998). 현대인적자원관리. 박영사.

보건복지부(2018).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안) : 1단계 노인커뮤니티케어 중심. p.14.

서동민(2013). 요양보호사 인력수급 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장기요양연구, 1(1), 100-136.

석재은·류임량(2018). 재가 장기요양에서 경력직 요양보호사 역할모형 개발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복지연구, 73(2), 107-140.

하석철·양지훈(2019). 요양보호사의 임금 공정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 46(1), 83-105.

ICAS 정책이슈&진단 (2019-04)

인천시 요양보호사 경력개발 방안

발행인 : 원 미 정

발행일 : 2019년 12월

발행처 : (재)인천여성가족재단 ·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발행처 : (2210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9

JST제물포스마트타운 10층

발행처 : TEL. 032-715-5491 FAX. 032-715-5319

인쇄처 : 디자인넷(032-201-8770)

*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인천여성가족재단에 있음